



☞ 정책동향 ...

KOVIA

벤처 해외진출 1억달러 펀드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전문투자펀드가 연내 조성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MBA 글로벌 스타펀드' 설립 계획을 공고하고 2000만달러를 출자해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미국의 일류 투자회사와 우수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국내 창업투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펀드를 설립·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성될 펀드는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과 해외에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현지·합작법인에 투자하게 된다. 중기청은 펀드 존속기간을 7년 이상으로 장기화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기업을 발굴·성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오는 4월 말까지 펀드 설립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 5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 창업대학·대학원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을 부추기고 기업가정신을 더욱 함양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벤처 창업대학 및 창업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한국의 창업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활발한 편인데도 기업가정신함양과 창업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5개의 창업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에 설립될 창업대학은 ▲수도권 2개 ▲충청권 1개 ▲영남권 1개 ▲호남권 1개 등이다.

중기청은 미국 뱀스칼리지 및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등 선진국대학들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창업전문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창업대학을 설립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설립될 대학은 학부과정의 경우 기존 공과대학 및 경상대학내에 창업학 과정을 별도로 설치해 2년과정의 창업관련과정을 마치면 창업학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원과정은 기존 경영대학원과 비슷한 특수대학원을 설립토록 해 창업학 석사를 배출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창업대학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2개 대학에 벤처창업전문과정(EIP)을 개설한다. 이 전문과정은 창업교육에 경험을 가진 2개 대학을 선정해 정부가 재원을 일부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자는 ▲예비창업자 ▲창업경연대회 수상자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유자 ▲창업아이디어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청은 EIP과정 졸업생에 대해선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우대권을 주기로 했다. EIP사업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기청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중기청에 접수하면 된다.

2월 벤처 수출 34% 증가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지난 1~2월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이 총 10억 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우리나라 총 수출증가율 23.9%와 대기업 총수출 증가율 17.1%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수출 277억 52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2년도 평균 3.6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전체의 64.4%에 해당하는 6억 5080만달러로 벤처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계류가 18.0%(1억 8240만달러), 철강금속 4.1%(4160만달러), 화학공업제품이 3.8%(3810만달러)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수출이 5억 867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도 72.6%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억 4630만달러, 증가율도 163.1%로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벤처기업 가운데 수출실적 2위를 차지했던 벨웨이브가 휴맥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IT〉 동북아 주요 4개국 IT산업 현황 및 올해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 정보체계연구팀은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의 IT산업 현황과 2003년도 전망을 각 나라별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IT Service 등의 부문별로 분석한 '동북아 주요 4개국의 IT산업 진단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이었고 이라크 전 및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 고조,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올해도 전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 주요 4개국의 IT산업은 일본의 경우 올해 IT산업 시장 규모가 전년에 비해 4.2% 성장한 25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수출 호조와 투자 및 내수 확대 등으로 올해도 IT 각 부문에서 8% 안팎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대내외 투자가 중국 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높은 인건비와 정치적 혼란, 부동산 버블(거품 현상), 전 세계 경기불황 등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IT H/W 부문에 강점이 있고 IT 서비스 부문의 시장 규모가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DRAM 반도체를 비롯, 이동통신 단말기와 TFT-LCD 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최근 2년간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외형상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IT산업은 올해 H/W 부문의 시장규모가 4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4%의 소폭 성장세, IT 서비스 부문은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 기술이전 '햇살'

중소기업에 기술·장비·인력·정보 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원장 주덕영)이 전국 주요 산업밀집지역에 대한 밀착지원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리적 한계 때문에 생기원으로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전국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최근 광주시(시장 박광태)와 첨단산업단지 내 부지 5340평을 광주시가 생기원에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하고, 내년 중 3000평 규모의 시험공장을 짓고 분야별 석박사급 인력 50여명을 투입하는 등 '생기원 광주지역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생기원은 지역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 첨단 부품·소재 인프라 조성과 함께 관련 생산기술 지원 및 신뢰성 향상 사업 등을 지역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생기원은 지난해 3월 송도테크노파크 내에서 생기원 인천연구센터 기공식을 갖고 국내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밀집된 인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인천연구센터는 이미 90% 가까이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내년 초 차세대 생산기술 분야와 신소재 분야 연구팀들이 입주해 관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제조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생기원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안산테크노파크에 IT·BT·NT·ET 등 첨단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생기원은 이밖에도 최근 전국 주요 산업밀집지역 지자체에서 지역 생기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이 같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